

美·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1991. 8. 6

李 三 星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姜 元 植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本資料는 統一政策 立案의 參考資料로 作成한 것으로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目 次

1. 頂上會談 結果	3
가. 戰略武器減縮協定 締結	3
나. 美國의 對蘇 經濟協力 提案	5
다. 其他 特記事項	6
2. 頂上會談 結果 分析	7
가. 戰略武器減縮協定	7
(1) 評價	7
(2) 展望	9
나. 美·蘇 經濟關係	12
(1) 對蘇 最惠國待遇 附與의 意味	12
(2) 美國의 對蘇 經濟支援 擴大	13
다. 美·蘇 頂上會談과 蘇聯 國內情勢	15
(1) 蘇聯 改革派의 立地 강화	15
(2) 蘇聯邦·共和國 關係에 대한 美國의 균형 대응	16
3. 東北亞 및 韓半島 情勢에 미칠 영향	18
가. 아·태지역 多者間 安保協議體 構想에 대한 關心 증대	18
나. 東北亞 非核地帶化 및 實質的 軍縮 可能性 희박	19
다. 韓半島 軍事的 緊張緩和 可能性 증대	20
라. 東北亞 國家들의 對蘇 經濟協力 可能性 증대	21

<부록1> 부시 大統領의 歡迎式 答辭演說(7. 30) 요지	23
<부록2> 부시 大統領의 모스크바 國際關係大學 講演(7. 30)	
요지	24
<부록3> 부시 大統領의 우크라이나議會 演說(7. 31) 요지 ...	27

1. 頂上會談 結果

가. 戰略武器減縮協定 締結

1982년부터 시작된 戰略武器減縮協商(START)이 이번 모스크바 美·蘇 頂上會談(1991. 7. 30~31)을 통하여 일단락되었는 바, 7. 31 美·蘇 頂上間에 체결된 協定の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양국의 戰略武器를 協定 批准 이후 7년간 3단계에 걸쳐 일정한 上限線 이하로 감축함.
-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중폭격기의 총수를 1,600기 이하로 제한함.
- ICBM, SLBM, 공중발사 순항미사일(ALCM), 장거리 중폭격기에 장착되는 핵탄두의 총수를 6,000개 이하로 제한함.
- 허용된 총 6,000개의 핵탄두 중에서 ICBM 및 SLBM에 장착되는 핵탄두를 4,900개 이내로 제한함.
- ICBM 및 SLBM 장착이 허용된 총 4,900개의 핵탄두 중에서 최신형인 이동식 ICBM 장착 핵탄두를 1,100개 이내로 제한함.
- 소련의 대형 ICBM(SS-18) 미사일과 장착 탄두수를 각각 154기와 1,540개 이내로 제한함.

- 해상발사 순항미사일(SLBM)은 880기 이내로 제한함.
- 檢證에 있어서는 衛星을 이용한 自國의 技術的 手段 (NTM) 활용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여러가지 規定을 채택함.
 - 데이터 교환, 전략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통고 의무화, 데이터의 암호화 금지, 현지사찰과 공개, 이동식 ICBM 의 최종조립공장에 대한 계속 감시를 위한 협력 의무 등.
- 이번 協定은 총 746페이지로서 本文 17조와 9개 附屬文書로 이루어져 있음.
 - 합의된 條約에 관한 부속문서
 - 定義・用語에 관한 부속문서
 - 廢棄에 관한 의정서
 - 데이터에 관한 양해각서
 - 査察에 관한 의정서
 - 通告에 관한 의정서
 - 投射重量에 관한 의정서
 - 合同遵守査察委員會에 관한 의정서

- 遠隔操作 測定데이터에 관한 의정서

나. 美國의 對蘇 經濟協力 提案

- 부시 大統領은 7. 30 對蘇 經濟支援을 위하여 다음 7개항의 이행을 약속함.
 - 對蘇 最惠國(MFN) 待遇 부여를 포함한 美·蘇 新貿易協定 체결
 - 對蘇 貿易信用保證 上限 철폐
 - 軍需産業의 民需 轉換 협조
 - 非原子力에너지 科學技術協力協定 체결
 - 國際金融機關에의 참가 지원
 - 食料品 流通 改善을 위한 專門調查團 파견
 - 美·蘇 租稅 및 投資條約 체결
- 또한 7. 30 미·소 양국 外무장관은 5개 經濟協定을 조인함.
 - 技術·經濟協力議定書¹⁾

1) 기술·경제협력을 위한 基金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부시 행정부는 92회계년도에 1천5백만~2천만 달러의 對蘇 技術支援을 내용으로 하는 法案을 지지함.

- 住宅・經濟開發에 관한 양해각서
- 民間航空 安全協力에 관한 양해각서
- 災害支援에 관한 양해각서
- 緊急醫藥品 공여와 지원에 관한 協定²⁾

다. 其他 特記事項

- 美・蘇 頂上은 오는 10월의 中東平和會談 召集에 합의함.
 - 이는 걸프戰에서의 공동보조 이후 미・소가 地域紛爭에서 계속 협력한다는 意志를 천명한 것임.
- 부시 대통령은 7. 30 옐친 러시아大統領과 별도의 회담을 가짐.
 - 옐친은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①農業民營化, ②軍需産業의 民需 轉換, ③經營指導를 위한 研修, ④文化交流 등 4개 항목에 대한 지원을 부시에게 요청하였으며, 부시의 基本的 同意를 얻었다고 밝힘.
- 한편 부시는 7. 30 환영식 답사연설과 모스크바 국제관계 대학 연설에서 ①北方領土問題가 “소련의 세계경제 편입

2) 이와 관련, 이미 미국은 모스크바의 火傷치료센터와 AIDS치료시설을 비롯, 발트3국・우크라이나・카자흐・우즈베크 공화국 등지에 8백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제공한 바 있음.

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北方領土의 對日 返還 필요성을 강조하고, ②蘇聯의 쿠바 支援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③발트 3국의 獨立 要求와 관련해서는 연방 정부와 발트3국 정부간의 善意의 交渉을 강조함.

-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분리주의적 공화국의 「자살적 고립」을 경고하는 등 聯邦・共和國間의 원만한 關係를 촉구함.

2. 頂上會談 結果 分析

가. 戰略武器減縮協定

(1) 評價

○ 이번 미·소 정상회담에서 戰略武器減縮協定이 체결됨에 따라 양국의 戰略武器가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減縮될 것임을 감안할 때, 이번 協定은 蘇聯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讓步를 감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ICBM, SLBM, 重爆擊機가 총 1,600기로 제한됨에 따라 현재 이 세 범주에서 2,526기를 보유하고 있는 蘇聯은 37%, 1,855기를 보유하고 있는 美國은 14%를 삭감하는 결과가 됨.

- ICBM, SLBM, ALCM 및 중폭격기에 장착되는 핵탄두 총수가 6,000개로 제한됨에 따라 현재 이 범주에서 10,180개를 보유하고 있는 蘇聯은 40%, 9,251개를 보유하고 있는 美國은 약 35%의 탄두를 폐기하게 됨.
 - 특히 ICBM, SLBM에 장착되는 탄두수를 4,900개로 제한함에 따라, 현재 동일 범주에서 9,405개를 보유하고 있는 蘇聯은 48%, 7,506개를 보유한 美國은 약 38%의 탄두를 삭감하게 됨.
 - 대형 ICBM이 154기, 탄두가 1,540개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308기의 대형 ICBM(SS-18)에 3,080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蘇聯은 이 부분에서 50%를 삭감하게 됨.
 - 현재 미국과 소련이 각각 367기와 100기를 보유하고 있는 SLCM의 상한선이 880기로 정해진 것은 이 범주에서 強點을 지닌 美國의 立場이 존중된 결과로 간주 됨.
- 그러나 이상과 같은 減縮 結果에도 불구하고, 이번 協定은 다음과 같은 限界性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협정으로 美·蘇가 보유한 상당량의 戰略武器가 감축되지만, 그 결과는 戰略武器減縮協商이 시작된 1982년 이후 현재까지 증가된 부분을 삭감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음.

- 6,000개 이하로 제한된 ICBM, SLBM, ALCM 및 중폭격기 장착 핵탄두와 그외 SLCM 장착 핵탄두를 모두 합하면 蘇聯은 7,000~8,000개, 美國은 9,000~10,000개의 核彈頭를 계속 보유하게 됨.
- 이 이외에도 미·소는 彈道彈요격미사일(ABM) 핵탄두(美 0, 蘇 2,800), 단거리 핵무기(美 4,890, 蘇 8,800), 해군 핵무기(주로 대잠수함용: 美 1,475, 蘇 3,400) 등을 계속 보유하게 됨.

— 또한 미·소 양국은 이 협정 하에서도 戰略核戰力의 現代化를 추진할 수 있음.

- 이동식 ICBM 핵탄두 상한선을 1,100개로 정함으로써 아직 동일범주 핵전력을 배치하지 않은 美國과 현재 660개만 보유하고 있는 蘇聯은 이 범주의 核戰力 現代化를 추진할 수 있음. 또한 SLCM의 상한선이 880기로 정해짐에 따라 현재 각각 100기와 367기를 보유하고 있는 소련과 미국은 이 분야 核戰力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
- 동시에 이 協定은 ABM이나 戰略防衛計劃(SDI)과 같은 尖端 軍備競爭分野를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분야에서의 競爭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2) 展望

- 美上院은 유럽 在來式武器減縮協定(CFE)에 대한 審議를

마친 후인 금년 가을 또는 내년초에 戰略武器減縮協定에 대한 批准 審議를 시작할 예정임. 協定 批准을 둘러싸고 공화당내 일부 극우파의 반대가 예상되나, 대부분의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이 協定 批准을 지지하고 있어 소련의 국내정세에 이변이 없는 한, 이번 協定은 美上院의 批准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戰略武器減縮協定이 체결됨에 따라 미국내에서는 기본적으로 「最小抑止」(minimum deterrence)概念에 입각한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제2의 戰略武器減縮協商」(START II)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미·소 양국의 戰略核彈頭를 3,000~4,000개 정도 추가 감축함.
 - 多彈頭미사일(MIRV) 생산을 금지하고 ICBM의 비중을 낮춤.³⁾
 - 모든 大型미사일, 특히 START에서 154기의 보유가 허용되고 있는 소련의 SS-18을 모두 제거함.
 - 목표물 도달속도가 빠르고 정확성이 뛰어나서 위험한

3) ICBM은 일반적으로 SLBM에 비하여 正確성이 뛰어나며 重爆擊機 보다 목표물 도달 시간이 짧다는 점 때문에, 보복용으로서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先制攻擊에 적합한 무기로 간주됨. 따라서 방어와 보복에 중점을 두는 恐怖의 均衡을 유지함에 있어서 ICBM은 다른 범주(SLBM, 중폭격기)의 전략무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을 위협하는 무기(destabilizing weapons)로 간주되고 있음.

尖端미사일들을 제한함.

○ 그러나 이러한 START II의 必要性에 대한 論議에도 불구하고 START 이후의 전략무기감축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理由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最小抑止」 주장은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 少數意見에 불과함.

— 美행정부 관리들은 미·소간 軍備統制에서 중요한 것은 소련 국내 정치·경제상황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武器減縮 보다 既存 武器에 대한 統制 개선과 우발적 核事故 방지 등 安全管理가 急先務라고 인식하고 있음.

— 미·소 양국은 앞으로도 核戰力 現代化를 계속 추진할 것임.

• 미국은 SDI 및 ABM 등 첨단분야에서의 무기개발을 계속 모색하고 있으며,⁴⁾ 92회계년도 美國防豫算은 B-2 전략폭격기, Trident II 미사일, 첨단 순항미사일 등을 비롯한 적어도 7개 항목의 戰略武器體制 改善事業을 포함하고 있음.

• 蘇聯도 이동식 지상발사미사일인 SS-25와 새로운

4) START가 타결된 같은 시기에 美上院 軍事委員會는 향후 5년내 ABM 體系 건설을 지지함으로써 미·소간에 이를 둘러싼 갈등과 경쟁의 소지가 증대하였음. 이에 따라 1972년 제1차 戰略武器制限協商(SALT I)과 함께 미·소간에 체결된 바 있는 ABM 協定이 死文化될 가능성이 높아짐.

핵잠수함인 Delta IV의 개발·배치를 계속하고 있으며, 5~6개의 새로운 戰略核미사일을 개발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나. 美·蘇 經濟關係

(1) 對蘇 最惠國待遇 附與의 意味

- 미국의 對蘇 最惠國待遇 부여는 美·蘇間 貿易障礙를 제거하여 양국간 貿易 正常化에 기여할 것임.
 - 美國은 이민규제를 행하고 있는 國家에 대한 通商便宜 提供을 제한하는 1974년 通商法の의 잭슨·베닉條項에 기초하여 對蘇 MFN 공여를 거부하여 왔음.
 - 그러나 美國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對蘇 最惠國待遇를 부여하기로 약속하였는 바,⁵⁾ 이는 소련 최고회의가 자국민의 출입국 권리를 광범하게 인정하는 移民法을 채택(1991. 5. 20)하였으며, 소련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 체제 이행 등 개혁정책을 지원·진작시킬 필요성이 증

5) 美國의 對蘇 最惠國待遇는 궁극적으로 美議會의 批准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議會內에서 적지않은 論難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임. 즉 美의회 내에서는 ①소련에 대한 最惠國대우 부여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발트3국에 대한 最惠國대우가 부여되어야 하며, ②최근 소련의 移民希望者가 급증하고 있으나, 出國 비자 申請手數料가 200 루블에서 1,000 루블 (평균노동자의 3개월 봉급)로 대폭 인상되었으므로 對蘇 最惠國待遇 부여 여부를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있음.

대되었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國의 對蘇 最惠國待遇가 직접적으로 소련의 經濟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은 것으로 평가됨.

－ 蘇聯이 經濟體制 改革이나 輸出商品의 開發 등을 통해 國際競爭力을 향상시키지 않는 한, 미국의 최혜국대우 부여가 소련의 對美 輸出 확대 등 실질적인 소련경제 발전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美國의 對蘇 最惠國待遇 부여는 미국이 앞으로 소련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약속에 지나지 않음.

－ 그러나 美國의 對蘇 最惠國待遇 부여가 미·소 經濟關係 正常化의 象徴이라는 점 및 서방의 대소 교역을 규제해 온 「對共產圈 輸出統制調整委員會」(COCOM) 規定을 재검토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西方의 對蘇 經濟關係 확대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야기시킬 것임.

(2) 美國의 對蘇 經濟支援 擴大

○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訪蘇歡迎辭에서 美·蘇 關係는 經濟協力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美國의 經濟支援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소련의 民主化·市場經濟化 速度에 따라 對蘇 支援을 비례시킨다

는 입장을 표명함.

- 따라서 미·소 양국간 경제협력분야에 관한 이번 頂上會談의 合意는 美國의 對蘇 「先改革」 促求와 「間接支援」으로 특징지어짐. 즉 美國은 미·소간 경제협력의 장애가 되어 온 美國의 法과 制度를 바꾸고, 蘇聯이 市場經濟體制로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技術支援을 한다는 것임.
-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이미 西方先進7個國(G7) 頂上會談에서 합의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전제한 「對蘇 直接經濟支援」보다 「改革을 위한 間接支援」方針과 일맥상통함.⁶⁾

○ 이번 美·蘇 頂上會談에서 START가 체결되고 미국의 대 소 경제지원이 약속됨에 따라 蘇聯의 市場經濟體制로의 移行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西方의 對蘇 經濟支援도 상승적으로 확대될 것임.

6) G7 頂上들은 7. 17 고르바초프와 회담을 개최, ①소련에 IMF와 IBRD 準會員 자격 부여, ②경제개혁 실현에 필요한 know-how와 실질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G7, IMF, IBRD, EBRD, OECD 등과 협력, ③에너지·軍需産業의 民需 전환, 식량수급·핵안전·교통 등 분야에 대한 技術支援 제공, ④소련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촉진 및 시장 제공, ⑤경제개혁과정 점검·협의 위해 메이저 영국총리의 연내 소련방문, ⑥ G7재무장관들과의 협의 확대·심화 등 對蘇 支援方案 6개항에 합의하였음.

다. 美·蘇 頂上會談과 蘇聯 國內情勢

(1) 蘇聯 改革派의 立地 강화

- 이번 미·소 정상회담에서 蘇聯의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改革」을 전제로 한 美·蘇 經濟關係 正常化가 이루어짐에 따라, 西方의 經濟協力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蘇聯은 향후 國內政治의 民主化와 市場經濟體制로의 移行 등 改革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한편 미·소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개혁추진 분위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蘇聯 軍部 및 共產黨內 強硬保守派는 START 체결에서 고르바초프의 양보, 부시 대통령의 내정간섭적 발언, 개혁파의 대미 접근 등을 비판하면서 改革反對 攻勢를 강화할 것인 바, 이것이 앞으로 蘇聯 國內情勢의 不安定 要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蘇聯 軍需産業의 民需 轉換은 軍수산업 종사노동자의 수가 약 1,200만명에 달하고, 특히 모스크바 근교와 우랄지역 지방산업의 70~80%가 軍수계통인 점에 비추어, 용이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軍部內 強硬保守勢力이 軍수산업 종사자들을 선동하여 개혁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행동을 조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나 保守派의 挑戰이 현재의 改革路線을 역전시킬 정

도의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희박함.

- 이번 미·소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군수산업의 민수 전환은 西方의 협력을 통해 蘇聯 軍需産業의 經濟的·知的·技術的 潛在力을 民需産業으로 전환시키고 궁극적으로 國際經濟體制 속으로 편입시킨다는 것임. 따라서 軍需産業의 民需 轉換이 소련경제 재건의 관건임을 강조하여 國民的 合意를 도출하는 동시에 실업 발생 등 군수산업 종사자의 不利益을 최소화시키는 方向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군수산업계의 반발과 불만이 조직화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임.
- 세바르드나제 前의상을 중심으로 한 反共産黨的 「民主改革運動」과 러시아 공화국내 공공부문에서 정당 및 정치조직의 활동을 금지하는 엘친의 大統領令(7.20)으로 현재 共産黨 자체가 심각한 存立危機에 직면하여 黨의 體質改善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黨內에 확산되어 있으며, 현재의 多元化·民主化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에 비추어, 保守強硬派의 抵抗은 한계가 있을 것임.
- 따라서 향후 蘇聯은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改革派의 立地가 강화된 가운데 民主化 및 市場經濟體制로의 移行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蘇聯邦·共和國 關係에 대한 美國의 均衡 대응

- 부시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聯邦大統領에 대한 積極的 支

持를 표명하는 동시에, 共和國側과도 우호적 관계를 모색함으로써 蘇聯邦・共和國 關係에 대해 최대한의 均衡을 취하려 함.

－ 미국은 蘇聯邦體制의 解體가 야기할 國際政治的 衝擊을 우려하여, 기본적으로 소연방체제가 유지되면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路線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음. 즉 美國은 소련정세의 안정을 바탕으로 걸프戰 이후에 확립되고 있는 「唯一超強大國」의 立場에서 향후 對蘇 關係를 美國의 國益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 함.

－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分離主義的 共和國들의 「自殺的 孤立」을 경고하여 新聯邦體制 속에서 소련정세가 안정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동시에, 美國은 聯邦 및 各共和國과의 關係를 공히 우호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강조함.

○ 美國의 이러한 對應은 적어도 엘친의 러시아대통령 당선 이래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

－ 즉 美國은 기본적으로 聯邦政府와의 關係를 증시할 것이나, 蘇聯의 改革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共和國의 自主權 확대를 지지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 한편 1991. 4 소련을 방문하고 귀국한 닉슨 前大統領

이 「共和國重視」로의 外交的 轉換을 강조한 바와 같이 미국내에서는 共和國과의 直接關係를 중시하는 주장도 있으나, 美國은 聯邦政府의 國際的 代表權과 양국관계의 持續性을 고려하여 政治・外交的 問題에 있어서는 고르바초프의 입지를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共和國과는 주로 經濟協力 增進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3. 東北亞 및 韓半島 情勢에 미칠 영향

가. 아・태지역 多者間 安保協議體 構想에 대한 關心 증대

- 戰略武器減縮協定이 체결되고 미・소 頂上이 地域紛爭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아・태지역에서도 多者間 安保協議 必要性이 증대되고 있음. 그 결과 蘇聯의 다자간 안보협의체 설립 주장의 타당성이 증대되고 이에 대한 域內 國家들의 關心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 多者間 安保協議體 설립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아・태지역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美國의 동의를 필요함. 그러나 미국은 일본, 한국 등과의 雙務的 同盟關係를 근간으로 동북아 안보

체제를 유지하려 하는 바,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기존 安保同盟體制의 正當性和 存在根據를 손상시킬 수 있는 소련 주도의 구상에는 계속 반대하고 있음.

-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이 아·태지역 多者間 安保協議體 構想에 대한 域內 國家들의 關心이 증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미국은 역내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 바, 이 問題는 美國의 外交的 負擔으로 작용할 것임.

나. 東北亞 非核地帶化 및 實質的 軍縮 可能性 희박

- 이번 미·소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戰略武器減縮協定은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軍備增強 抑止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그러나 蘇聯이 제안한 바 있는 東北亞 非核地帶化 構想이나 실질적 軍縮의 實現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미·소 양국이 核에 의한 공포의 균형 정책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동북아에 배치된 미·소 核戰力の 전면적 廢棄는 물론, 「最小抑止」 수준으로의 大幅的 減縮도 실현되기 어려움.
 - 동북아에 전진배치된 미군 보유 先進核무기들은 이번 減縮協定 對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이 前進 配置戰略과 柔軟對應戰略을 고수하는 한, 동북아에서

의 비핵지대화나 대폭적 핵군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됨.

- 이번 協定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海軍力 減縮에 소극적인 美國의 입장과 이에 따른 오토츠크海에 배치된 蘇聯 海軍력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에 비추어, 동북아지역의 주요 군축대상이 되고 있는 海軍力 減縮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됨.

다. 韓半島 軍事的 緊張緩和 可能性 증대

- 戰略武器減縮協定이 체결됨에 따라 미·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냉전적 긴장이 지속되어 온 韓半島에서 軍事的 緊張緩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임.
- 또한 이번 미·소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중동평화회의 소집에 합의하는 등 地域紛爭 解決을 위한 共同努力을 약속한 사실에 비추어, 미·소 양국이 韓半島問題 解決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美國이 핵문제를 포함한 韓半島 軍事問題에 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韓國 政府는 南北韓間 核問題 論議에서 보다 자율적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임.

라. 東北亞 國家들의 對蘇 經濟協力 可能性 증대

- 이번 미·소 정상회담에서 韓·日 등의 對蘇 經濟進出 主要因의 하나로 작용하여 온 美國의 消極的 對蘇 政策이 변화되고 美·蘇 經濟關係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련과 동북아 국가들과의 兩者間 經濟協力이 積極化될 것임.
 - 동시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蘇聯의 시베리아開發 努力이 積極化될 可能性이 큼. 이에 따라 시베리아개발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진출이 進전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 국가들의 소련과의 兩者間 經濟協力は 물론 美國을 포함한 多者間 經濟協力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한편 聯邦·共和國 關係를 고려한 美國의 對蘇 대응은 東北亞 國家들의 對蘇 대응의 前例로 작용할 것임. 즉 美國이 러시아공화국 등 소연방 구성공화국들과 직접적인 經濟關係를 모색할 경우, 이는 특히 러시아공화국과 域內 국가들과의 經濟協力 可能性을 증대시킬 것임.
 - 또한 러시아공화국이 域內 공화국들과 달리 시베리아 개발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동북아 域內 最大 共和國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東北亞政策을 수립하여 域內 國家들과의 關係 定立을 積極 모색할 可能性도 있음.
- 특히 이번 미·소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일·소 관

계개선을 촉구함에 따라, 日・蘇 經濟關係 發展을 위한 蘇聯의 努力이 적극화되고 이에 대해 日本이 긍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증대됨.

-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對蘇 經濟協力 約束이 궁극적으로 日本의 協力 없이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北方領土問題를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을 蘇聯側에도 강조하였을 것으로 추론됨. 따라서 蘇聯이 일본과의 經濟協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北方領土問題 해결을 모색, 對日 交渉을 적극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美・蘇 經濟協력은 日本 民間企業의 對蘇 經濟進出 期待를 증폭시키고, 政經不可分 原則을 천명해 온 일본 정부의 對蘇 強硬立場을 상당부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日・蘇 經濟協력을 증대시키는 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부록1> 부시 大統領의 歡迎式 答辭演說(7. 30) 요지

-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經濟 및 安保協力에 기초하여 미·소간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함. 經濟分野에 있어서 우리는 몰타에서의 합의에 기초하여 蘇聯의 國際經濟體制로의 編入을 돕는 방향으로, 그리고 양국간 經濟關係를 正常化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함.
- 과거 대결 만이 존재했던 中東에서 새로운 平和定着 可能性이 보이기 시작함.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랍 인접국 간에 지속적인 平和가 구축되도록 노력할 것임. 또한 우리가 앙골라, 나미비아, 니카라과에서 平和와 民主主義가 정착되도록 노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과 캄보디아 紛爭 해결을 위하여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안정된 세계, 더 이상 양극화되지 않는 호혜적인 경제관계, 무기확산에서부터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있어서의 協力 등과 같은 共同目標를 추구하자.
- 미·소 간에는 見解差가 존재함. 즉 쿠바, 발틱共和國들의 미래, 日本의 北方島嶼 등에 있어서 견해차가 존재함. 그러나 平和적이고 민주주의적인 政治와 생산적이고 자유로운 經濟에 입각한 지속적인 파트너쉽 精神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자.
- 兩國政府間 關係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소련공화국들의

市民間の 相互關係와 기업인, 학생, 예술인 및 과학자 등 사회의 광범한 분야에서 相互理解가 증진되기를 희망함.

<부록2> 부시 大統領의 모스크바 國際關係大學 講演
(7. 30) 요지

- 緊張緩和가 兩國間 經濟關係正常化를 가능하게 했음. 고르바초프 大統領과 나는 이를 몰타頂上會談의 우선사항으로 하였음. 이 正常化 過程이 거의 완료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이러한 進展의 결과, 나는 1년전에 조인한 美·蘇 通商協定을 議會에 제출하고, 소련에 대해 最惠國待遇를 부여할 수 있음.
- 나는 借款을 제한하고 貿易을 방해한 바드·스티븐슨修正條項의 철폐를 의회에 요구함. 關稅協定과 兩國間 投資協定을 매듭지을 노력을 촉진함.
- 相互貿易 이외에 미국은 소련이 世界經濟에 편입될 수 있도록 門戶를 개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미국은 소련이 GATT에 옵서버로 참가하는 것을 지지함. 소련이 필요한 改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正式 參加도 찬성할 것임.
- 우리가 冷戰時代의 증오를 극복하고 있는 최고의 증거는

걸프戰에서 兩國의 協力임. 냉전시대였다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양국과 전세계를 戰爭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을지도 모름. 그러나 그 반대로 미·소 양국의 협력은 사담 후세인의 國際的 孤立을 확실하게 했음. 걸프戰의 중요 국면에서 이라크의 침공은 허용될 수 없다는 강력하고도 계속적인 신호를 후세인에게 보내는데 미·소는 협력했음.

- 걸프戰에서 兩國의 協力は 오늘날 중동, 캄보디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등의 紛爭地域에서도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미·소가 협력할수 있다는 희망을 줌.
- 軍事, 政治, 經濟 등 諸分野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의 전략적 징조가 나타나고 있으나, 障礙도 남아있음.
- 그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과 그후의 냉전에 근거하고 있음. 그 實例는 北方領土 返還을 요구하는 日本의 주장으로, 우리는 이를 지지함. 이 論爭은 소련의 世界經濟 編入을 저해할 것임. 양자간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미국은 모든 원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
- 또 다른 難題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의 장래에 관한 것임. 민주적으로 선출된 발트3국의 신세대 지도부가 스탈린시대의 어두운 유물과의 결별을 소련의 신세대 지도부에 구하고 있음. 自由를 원하는 발트3국 국민의 희망에 부응하는 것은 발트3국 정부와의 선

의의 교섭 뿐임. 평화적인 변화를 향해 명확하면서도 무조건적인 관여가 필요함.

- 또 하나의 障礙는 쿠바에 있음. 미국은 쿠바에 대해 아무런 위협도 주지 않고 있음. 소련이 쿠바에 수백만 달러의 軍事援助를 할 필요는 결코 없음. 카스트로는 글라스노스찌와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信念을 이해하고 있지 않음.
- 지금이야말로 軍事機構를 平和體制로 이행하고, 軍事費를 삭감하여야 함. 軍需産業을 생산적이고 평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도 도울 것임. 經濟의 非軍事化는 經濟改革의 要諦임.
- 가장 핵심적 문제는 지금 蘇聯社會를 변용시키고 있는 實驗의 結果에 있음. 하나의 견해를 강제하는 一黨獨裁, 保守的 立法機關은 없어졌음. 새로운 蘇聯革命이 시작되고 있음.
- 反動·抵抗勢力은 여전히 큰 힘을 갖고 있음. 그러나 變化로의 새로운 宣言, 行動에의 새로운 呼訴가 나날이 생겨나고 있음. 미국은 어디에 있든지 自由와 改革의 勢力과 함께 있음. 우리나라는 소련의 이러한 새로운 革命을 도울 용의가 있음.
- 소련은 IMF와 世界銀行 등 國際投資社會의 지지를 얻는 經濟戰略을 세워야 함. 그것은 소련의 방대한 天然資源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련국민의 위대한 人的 可能性을 해방

시키는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됨.

- 美·蘇의 새로운 파트너쉽은 양국의 모든 마을간의 거리를 메우는 것이어야 함. 과거 40년간 이런 모든 協調는 냉전으로 방해받았음. 이 모스크바 頂上會談을 장구한 相互不信時代의 終結, 양국의 평화와 파트너쉽의 新時代로의 移行을 획기하는 것으로 하자.

<부록3> 부시 大統領의 우크라이나議會 演說(7. 31)

요지

- 과거 우크라이나共和國 國民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통제를 가하는 방대한 政府機構의 권력에 눌려 무기력감을 느껴왔음.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은 자유의 약속을 추구하고 있음.
- 나는 이 위대한 共和國이 민주주의와 경제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러 이곳에 왔음.
- 우리는 自由와 民主主義, 그리고 經濟的 自由를 추구하고 있는 中央政府와 共和國들의 노력을 지지함. 우리는 개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原則에 입각하여 이러한 지지를 결정하게 될 것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改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음. 우리는 中央政府와 各共和國 간의 葛藤에서 勝者와 敗者를 가리고자 하지는 않을 것임.

이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스스로 결정할 일임.

- 우리는 蘇聯 國內問題를 간섭하지 않을 것임. 혹자는 미국이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소련내에서 독립을 지향하고 있는 지도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음. 그러나 本人은 그러한 選擇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공정히 평가할 때,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글라스노스찌와 페레스트로이카 등 놀랄만한 業績을 달성하였으며,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는 民主化의 轉換點을 이루었음. 우리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연방정부와 가능한 한 균전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동시에 蘇聯에서의 새로운 現實을 평가하여, 각 공화국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임.
- 우리는 民主主義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지함. 民主主義란 良心을 따라 그리고 選舉를 통해 공개 경쟁할 수 있는 政治體制를 의미함.
- 현대사회에 있어서 自由와 民主主義는 經濟的 自由에 의존함. 自由經濟는 個人的 權利 또는 일할 動機를 부여하고 生産性を 높여 주는 利潤動機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
- 自由經濟는 經濟的 主流에의 同參을 요구함. 本人은 특히 오늘날 소련에서 몇몇 도시, 지역 그리고 공화국간 무역

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주목함. 「9+1 條約」은 각 공화국이 희망 없는 孤立의 길을 추구하는 대신, 보다 자발적인 정치·사회·문화·경제적 상호작용을 내용으로 하는 광범위한 自治를 결집시킬 수 있는 希望을 제시해 주고 있음.

- “큰 모험을 시작할 때면, 강인해져라”라는 우크라이나 격언처럼 소련국민들은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모험을 치뤘 나가고 있음. 본인은 오늘 자유를 모색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곳에 왔음. 우리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지향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할 것 임.